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역량강화 교육

전북-전남권 오리농가 차단방역 수칙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엔플루엔자(AI) 차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 업체,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들어 동절기마다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교육은 오리,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 경남지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첫 교육이 시작됐다.

이어 전북권은 8월 25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오리농가가 가장 많은 전남권은 지난 9월 8일 전남농업기술원 교육관에서 2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강의가 이어졌다.



농번기 정규교육 외 보충교육 추가로 개설 교육이수 대상·혜택 늘려 농가 참여율 제고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가금 전문가인 반석가금연구소 손영호 소장이 맡아 진행했다.

특히 손영호 소장은 양계가금 농가에서 태어나 직접 양계를 키웠던 경험, 열악했던 시설, 전문가로서 전공 후 가족들과의 대화 내용을 강의해 교육참여 농가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전문적인 교육 또한 AI 바이러스의 증식과정과 병원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롯해 과거 국내에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전달해 기존의 이론 교육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의 특징과 농장까지의 상세한 유입경로 설명은 실제로 농가들이 농장에서 어떻게 차단방역을 해야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자는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바쁜 농가를 위해 정규 교육 외에 보충 교육을 추가로 개설해 많은 농가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AI 발생시 살처분보상금 10% 경감 대상에 무항생제인증 또는 HACCP 인증농가가 추가됐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농장주 및 고용된 사람 모두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협조하는 우수농가로 추천받는 경우 살처분보상금 10% 경감 혜택을 부여해 교육 참여율을 제고시켰다.

